

트럼프 “이란 최종합의 큰 진전...해방프로젝트 잠시중단”

해방 프로젝트 개시 하루만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 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양국 휴전이 한 달을 앞둔 가운데 전날 개시된 해방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국면이 급변된 것이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이란과의 중전 및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란의 자금줄(석유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작

전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던 미국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는 이란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해협에 묶인 유조선의 운항을 재개해 국제 유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구체적인 작전 운영방식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이란 측 공격을 저지·견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이뤄졌다.

해방 프로젝트 개시 첫날부터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던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란이 서로 무력을 행사하면서 휴전 붕괴 우려가 고조됐다.

미군 발표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격추했으며,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군용 소형 고속정들도 미 육군 아파치 헬기에 의해 격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며 이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초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에 부는 케이팝 열기 멕시코시티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팬 미팅에서 한 여성이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실물 크기 판넬 옆에 한국 국기를 들고 있다. 케이팝 열풍이 멕시코 젊은이들을 사로잡았고, 부모들은 이러한 “건전한 열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과 댄서들이 국제 투어의 세차례 콘서트를 며칠 앞두고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텍사스 캐럴턴 한인타운서 총격...2명 사망·3명 부상

60대 총격 용의자 한인 추정

“피해자들과는 사업상 관계”

미국 텍사스주(州) 소재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졌다.

AP통신과 NBC방송은 5일(현지시간) 텍사스 달러스 북부에 위치한 캐럴턴 케이타운 플라

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케이타운 플라라는 이 도시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용의자는 이후 도주하다가 인근 H마트 앞에서 경찰에 잡혔다. 지역 매체인 ABC10 방송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한성호(80)씨로, 한인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로베르토 아렌돈도 캐럴턴 경찰서장은 ‘묻지 마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캐럴턴은 달러스에서 32㎞ 떨어진 인구 13만 명의 도시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4천명 가량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단전·치안악화 쿠바...4월 시위·항의 1천100여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서 4월 한 달간 1천100건이 넘는 반정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입수해 5일(현지시간) 보도한 쿠바갈등관측소(OCC)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쿠바 전역에서 1천 133건의 시위와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 발생했다.

이는 거리 집회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비판 및 당국 고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체제에 대한 저항이 305건으로 전체 불만 표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26.9%)을 차

지했다.

OCC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쿠바 정권의 두려움이 고조되면서 4월 한달간 정치적 탄압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임의 체포와 심문 등 176건의 탄압 사례가 있었다.

치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경우가 18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이 41건, 강도 사건이 21건 발생하는 등 치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과 단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표출도 153건에 달했으며 식량과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는 사례는 130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일 무기수출 가속...필리핀과 실무 협의 구성 합의

‘살상무기’ 중고 호위함 수출 절차

무기 수출 규제를 풀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해 필리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 협의 틀을 통해 앞으로 수출 장비 정비 지원, 교육 훈련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중고 호위함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따라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출 사례가 된다. 일본은 중고 호위함을 그동안 살상 무기로 분류해왔다.

필리핀은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에 기대감을 보여왔다.

일본 방위성은 아부쿠마형 호위함이 취역한 지 30년이 지나 보유한 6척을 차례로 퇴역시킬 방침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일본은 중고 호위함 수출이 필리핀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번 중고 호위함 수출 논의는 필리핀의 방위력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테오도로 장관은 실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을 지목하며 “심각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필리핀은 일본의 항공기·미사일 요격용 방공 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과 해상자위대의 훈련기 ‘TC30’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